有給休暇制度의 理論的 考察

趙 欽 鶴*

--- 目 次 ---

I. 序 説
II. ILO규정의 休暇制度
III. 有給休暇의 內容과 學說
IV. 休暇支給・支給方法과 改正案
V. 結 論

I. 序 説

休暇是 勤勞者の 異福を 超過시키고 労働의 재생산을 이끌어 生産性を 유지하기 위하여 勤務자에게 必要한 내용기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 勤務基準法에서 休暇에 관한 내용을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71조에 정해 놓고 勤務者를 보호하며 生産性을 높여 勤務者가 人間답게 살 수 있도록 生活을 保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중의 하나가 有給休暇制度라고 할 수 있고, 이 有給休暇制度는 勤務자 보호를 위해 ILO에서 1936년 第52號 協約에서 風火星, 상업, 서무분야 근로자에게 1년 근속시 1주간의 息가제도 (年次有給休暇)를 체택하고, 1952년의 協約 제101호에 수후 규정되었다.

* 位置학박사・인하대학교 강사・勞動法
그 후 52년에는 농업에 있어서의 有給休暇에 관한 協約(第101號)과 第93
號 勸告 및 58년의 農業勤務者の 勤務條件에 관한 協約에도 休暇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었으며, 海員의 有給休暇에 관해서도 第54號(年次), 第72號
(有給休暇), 第146號(年次) 協約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1). 그 중에서 第72
號(船員의 有給休暇에 관한 協約)와 第132號(年次有給休暇에 관한 協約,
70年 개정)가 채택되어 船長, 士官, 無線通信士에 관해서 18일 이상, 기타
船員에 관해서 12일 이상의 休暇 규정이 채택 되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有給休暇에 관한 協約들이나 基本文書는 역시 1936년의 第52號
協約(年次有給休暇)을 기초로 하였으며, 1976년 第132號(年次有給休暇)協約
은 이를 改定하여 年次有給休暇를 3週刊으로 채택하였고, 그 후 1974년
에 새로운 개정의 年次有給休暇에 관한 第140號(有給休暇)協約과 第148號
(作業環境 및 공休, 소음)의 勸告가 도입 되어졌다2). 이러한 休暇制度의
발선 속에 우리나라의 休暇制度를 살펴보면 年次休暇, 月次休暇, 週休制,
生理休暇로 나누어지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휴
가제도의 개정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휴가제도의 연역
적 측면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ILO규정과 우리나라의 개정안 前의 有給休
暇의 규정을 살펴보고 有給休暇 支給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II. ILO 규정의 休暇制度

1. 週休制度

週休制가 나타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후 (베르사이유조약 제427조 제
5호)에 일요일을 포함하여 24시간의 休暇을 매주1회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나왔으며, 이 의미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완전히 이탈
하여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문화적 향상을 위하여 마련한 1일 休暇의 형

1) 韓國比較勞動法學會, ILO協約分類 및 概要, 勞動法 論叢(第2輯), 韓國比
較勞動法學會 1999, 247쪽~252쪽.
2) 李玉珩, 國際勞動法, 崇實大學校出版部 1995, 364쪽.